

시론



탁인석 문학칼럼니스트

전남광주에 '문학지도'를 그려라

의 흐름으로 엮어 재구성할 때, 비로소 이 지역은 다시 찾고 싶은 매력적인 문화권으로 자리 잡을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근대문학의 흐름을 살펴 보면 시문학과의 존재는 매우 중요하다. 1930년 <<시문학>>지를 중심으로 활동한 시문학파는 카프 계열의 이념 문학에 반발하며 예술 본연의 순수성을 회복하고자 했던 문학 운동이었다.

또한 이 지역 문학의 또 다른 큰 축은 가사문학이다. 지금까지 가사문학은 담양의 한국가사문학관을 중심으로 인식돼 왔지만, 실제로는 무등산을 중심으로 한 광주와 주변 지역의 문학적 토양 속에서 형성된 것이다.

여기에 더해 현대 문학의 세계적 성과를 지역 문화 전략과 연결하는 시도도 필요하다. 특히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수상은 한국 문학사에서 전례 없는 사건으로, 이를 지역 문화 자산으로 확장하는 발상이 가능하다.

아일랜드 더블린의 '볼름스데이'는 제임스 조이스의 소설 「율리시스」를 기반으로 도시 전체가 문학 축제로 전환되는 대표적 사례다. 시민과 관광객은 작품 속 주인공의 동선을 따라 도시를 체험하며 문학과 일상을 결합한다.

이러한 흐름은 단순한 관광 프로그램이 아니라 문학과 역사, 공간을 결합한 문화 고속도로와 같다. 시문학과의 서정성, 무등산 가사문학의 철학성, 현대 한강 문학의 세계성을 하나의 축으로 연결할 때 전남광주는 새로운 문화 지도를 그릴 수 있다.

K컬처가 세계적으로 200조 원 규모의 산업으로 성장한 지금, 전남광주특별시는 더 이상 주변부가 아니라 중심을 향해 나아갈 조건을 갖추고 있다. 산업과 문화가 분리된 전략이 아니라 서로를 강화하는 구조로 재편될 때, 이 지역은 세계가 주목하는 문화도시로 성장할 수 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자원을 어떻게 나누느냐가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연결하고 서사화 하느냐의 문제다. 전남광주특별시의 미래는 산업 투자만으로 완성되지 않는다. 문화, 역사, 문학, 공간을 하나의 이야기로 엮어낼 때 비로소 세계 속에서 경쟁력 있는 도시로 자리 잡게 될 것이다.

전남광주특별시의 미래 청사진은 어디에서부터 시작해야 할까. 한 지역의 비전은 단순한 개발 계획을 넘어 산업, 문화, 관광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고도의 전략 속에서 설계돼야 한다.

전남광주특별시는 오래전부터 '예향'이라 불리며 문화와 예술의 높은 수준을 유지해 온 지역이다. 한때 방송 자막에는 '광주는 문화, 전남은 관광'이라는 정책 구분이 사용되기도 했다.

수도권이나 영남권 관광객이 이 지역을 찾을 때 광주와 전남을 명확히 분리된 개념으로 인식하기보다는, 통칭 '남도'라는 문화권으로 체감하게 되는 것이 현실이다.

의료칼럼



곽희호 목포천연한방병원장

어지러우면서 이명이 발생하는 '메니에르병'

나 음고 변동이 심하다. 난청은 감각신경성 난청이 가장 흔하다. 초기에는 한쪽 귀에서만 발생하나 20~50% 정도의 환자에서 양측으로 발생한다.

진단은 명확한 진단검사가 없기 때문에 메니에르병의 특징적인 증상을 파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미국 이비인후과 학회에서 제시한 진단기준에 따르면 20분 이상 지속되는 회전성 어지러움, 명확히 확인되는 감각신경성 난청, 이명 혹은 이 충만감의 세 가지 증상을 만족하면 메니에르병으로 진단할 수 있다.

치료는 어지러움의 양상과 청력 소실의 정도에 따라 치료방침을 세워야 한다. 어지러움 발작은 90~95%의 환자에서 보존치료만으로 조절이 가능하지만, 진행성 난청은 치료에 잘 반응하지 않으므로 질병의 진행을 예방해 장애를 최소화하는 것이 목표이다.

약물치료에는 항히스타민제, 전정억제제, 베타히스틴, 이뇨제 등 다양한 약물이 처방

된다. 항히스타민제나 전정억제제는 급성 어지러움 발작을 완화해주고, 베타히스틴은 혈류와 신경기능을 개선해준다. 이뇨제는 내림프 수종을 낮추기 위해 사용된다.

침구치료는 내이의 혈류를 개선하여 어지러움 발작과 오심구토 증상을 개선해주는 효과가 있다. 치료부위는 귀구멍 전면에 있는 이문(耳門)혈, 청궁(聽宮)혈, 청회(聽會)혈

후경부에 있는 두관상근, 경관상근 같은 근육에 시술하는 편이다. 한약치료는 혈류 개선과 함께 체내 수분을 조절하여 근본적으로 메니에르병을 치료해준다.

메니에르병은 재발이 잦아서 삶의 질을 떨어뜨릴 수 있다. 가벼운 어지러움이라도 이명, 난청 등의 내이증상이 동반된다면 반드시 가까운 의료기관에 내원해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이 필요하다.

독자투고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들이나 노인 등 교통약자들은 일명 전동카트라 불리는 전동보장구를 많이 이용하고 있다. 전동카트가 없는 생활이 불편한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이들 보행 보조 전동카트는 이들에게 손발이나 다름없이 고마운 존재일 수밖에 없다.

하지만 일부 전동카트 이용자들이 인도를 이용하지 않고 차도를 주행하는 경우가 많아 사고위험에 노출되어 있어 주의가 요망되고 있다. 이런 상황이 되면 옆을 지나가는 차량들은 이를 피하기 위해 차선을 오가는 등 아찔한 상황이 연출되게 된다.

전동카트, 안전운전 꼭 숙지하자

높을 수밖에 없다. 실상 도심 인도의 실태를 보면 인도 폭 자체가 좁거나 울퉁불퉁한 구간도 있어 전동카트를 운행하기 힘든 여건이 많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상대적으로 주행이 편한 도로를 운행하기도 한다.

* 독자투고를 기다립니다. 하고싶은이야기·사건 등을 보내주세요 * 외부필자의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대목이다. 이러한 여러 제반 상황에서 필자는 제품 판매 당시부터 조작법 외에도 교통법규, 안전운행 방법 등 안전교육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전동카트는 자동차와 달리 에어백이나 안전벨트 같은 운전자 보호 장치가 없기 때문에 사고가 발생할 경우 중상을 입거나 사망에까지 이를수도 있음을 알아야 한다.

지금부터라도 전동카트 운전자 자신부터 차도주행 및 야간주행을 피하는 안전운전을 실천하자. <김덕형·장성경경찰서 상서파출소장>

社說

5·18정신 헌법 전문 수록 국민적 요구 더 회피 말라

5·18 민주화운동을 대한민국 헌법 전문에 새기는 일은 미룰 수 없는 국가의 책무지만 국회가 이를 저버릴 태세다. 6·3 지방선거와 동시 투표가 해법인데도 국민의힘이 아직은 아니라며 한사코 반대하고 있어서다.

국회 본관 앞에서 5·18정신헌법전문수룩국민추진위원회, 부마민주항쟁헌법전문수룩국민추진위원회, 시민주도헌법개정전국네트워크는 신속한 개헌안 의결과 의원들의 책임있는 참여를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열었다.

5·18이 있었기에 12·3 비상계엄, 내란을 막아냈다. 서울 퍼런 총칼에 맞서 끝까지 지켜낸 것은 인간 존엄이라는 보편적 가치였다.

초호황 반도체 기업 농어민 등 사회 환원은 책무다

인공지능(AI)발 반도체 경기 초호황에 힘입어 삼성전자가 SK하이닉스가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한 가운데 국가 성장 과정에서 누적된 불균형을 바로잡기 위한 사회적 책임을 촉구하는 주장이 나왔다.

최근 삼성전자 노동조합이 영업이익의 15%, 최대 45조원 규모로 추정되는 성과급과 상한제 폐지 등을 요구하며 사측과 대립하고 있다. 이에 개인투자자 등 주주들은 맞불 집회까지 불사하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글로벌 반도체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기술 격차가 지속적으로 축소되고 있다.

추가가 아니다. 민주정정을 완성하는 과업이다. 국가 폭력과 독재에 맞서온 역사를 계승하는 일이다. 애국과 께뻘을 구조적으로 차단하는 근본적인 대응이다.

헌법 전문 수록이 실현될 때까지 투쟁을 멈출 수 없다. 모든 시민과 함께 연대는 더 견고해질 것이다. 지방선거와 함께 국민투표가 이뤄지기 위해서는 5월10일 전까지 국회 본회의에서 개헌안이 처리돼야 한다.

올해 제46주년 5·18 기념행사는 '오월의 꽃, 오월의 빛'을 대주제로 민주광장과 금남로 일대에서 펼쳐진다. 1980년 해방 광주의 나눔공동체를 재현하기 위해 다양한 참여 부스와 체험 프로그램 등으로 구성된다.

그래픽 뉴스

Table with 2 columns: '현행' and '개선'. Rows show electricity charges for 100kW and 30kW. Includes a note about the 4th quarter electricity charge reduction.

충전 속도가 매우 빠른 전기차 충전기 요금은 오히려, 느린 충전기 요금은 인하된다. 기후부 에너지환경부는 기후부가 운영하는 공공 전기차 충전기와 기후부 '이음카드' 회원으로 다른 전기차 충전 사업자 충전기를 이용할 때 적용하는 요금(로밍요금)을 개편하기로 하고 관련 내용을 30일부터 내달 19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29일 밝혔다.

광주매일신문 1991년 11월 1일 창간 http://www.kjdaily.com. 부회장 馬讚皓, 사장·발행·편집인 李庚秀, 논설실장 金鍾民, 편집국장 朴恩成. Contact information and subscription details.